



제시문 (가)의 작품에서는 이름 부르기를 통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는 모습을 '이름을 불러 주기 전'과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화자 자신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며 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은 언어 사용에서 차별과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다. 특히, 혐오 표현을 엄금하며 타인을 비난하는 언어를 문제화한다. 제시문 (가)와 (나)는 언어와 사고 중에서 무엇이 지배적인지를 논하는 제시문 (다)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를 획득하는 것과 정치적 올바름에서 편견이 포함된 언어 사용이 차별적인 고정관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ㄱ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 기호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 언어가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반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지와 차별 의식이라는 사고가 언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ㄴ의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언어는 사고가 형성된 후에 이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것이다. 결국,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언어와 사고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언어관을 전제로 갖고 있다.

제시문 (라)에 주어진 단어들 중 '후진국'이라는 단어 속에는 '발전 수준이 뒤쳐진 나라'라는 차별적인 시선이 담긴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후진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월성을 느끼고 후진국 사람들을 무시하며 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차별 대우를 통해 '후진국'이라는 단어가 결국 혐오 표현이라는 점에서 비판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할, 그리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라는 뜻의 '발전국'이라고 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해당국가의 발전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고, 타국가에서도 이들을 노력하는 국가로 인식하여 해외원조 등이 활성화되는 등 존중하는 자세가 확산된다는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올바름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불러온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언어 사용에만 제재를 가해서는 개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어려워 보인다. 즉, 편견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단어만 사라질 뿐 법적 규제 등은 바뀌지 않아 실질적인 대우의 개선에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한계점을 보인다.